

‘따라하기’ 출판, ‘따라 읽는’ 독자들

실용·인문 분야에 엇비슷한 책들 ... 소신 있는 기획출판 아쉬워

김기태

광주대·대전전문대 강사·출판학

우리 출판계가 불황의 터널 속에 갇혀 있는 요즘, 서점에 가보면 비슷한 제목의 책들이 유난히 많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른바 ‘유사 출판’ ‘중복 출판’ 혹은 ‘추종 출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증거로 삼기에 충분할 정도로.

물론 어제 오늘에 생긴 일은 결코 아니다. 이 글에서는 이런 현상을 통틀어 ‘아류 출판’이라 이름짓고자 하거니와, 이미 우리 출판계는 여러 분야에서 아류의 등장으로 인해 끝내 공멸의 나락에 빠져 사라진 베스트셀러를 수도 없이 보아왔다. 그때마다 이구동성으로 몰염치한 출판 행태에 대하여 자제와 각성을 촉구하면서 킬기할 듯 들끓었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많은 출판인들은 헤쳐 모인 군졸들처럼 의기양양하게 아류 출판의 길을 걷곤 했다.

어쨌든 어디서 퍼낸 것에 관계없이, 또 무슨 내용의 책이든 상관없이 잘 팔리는 기미가 보이기만 하면 즉시 아류가 판치는 우리 출판계의 풍토는 결국 출판계 전체를 멎

게 하는 병폐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상업성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출판계 전반의 구조적 모순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비슷한 제목·표지에 비슷한 내용

최근의 출판환경 역시 베스트셀러로서 자리잡은 책들은 오래지 않아 비슷한 제목, 비슷한 표지, 그리고 비슷한 내용을 담고 쏟아져 나오는 아류 출판물들의 협공에 시달리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문학류보다는 교양서에서, 창작물보다는 번역물에서, 예술 분야보다는 실용도서에서 두드러지는 이러한 현상은 요사이 실용도서와 인문과학 분야에서 더욱 혈투에 가까운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먼저 일본인 하루야마 시게오의 《뇌내혁명》과 노구치 유키오의 《초학습법》이 각광을 받으면서 쏟아지기 시작한 두뇌 개발 혹은 학습 및 경영능력 향상에 관한 책들을 볼 수 있다. 특히 제목에 ‘초(超)’자를 달고



‘아류출판’의 협공은 실용서, 특히 학습 및 경영능력에 관한 책들에서 두드러진다.

나오는 책들이 눈에 많이 띈다.

《초학습법》의 저자가 쓴 것만 해도 《조정보활용법》 《컴퓨터시대 초능력법》 《조정리법》 등이 있으며, 다른 일본인 저자의 번역서로 《초사고》 《초물류혁신》 《초뇌성공법》 《초수면법》 《초과과시대의 경영》 《초가격과괴의 시대》 같은 책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저자들의 것으로는 《초능력 고득점 학습법》 《초국적시대의 미국기업》 《초발상법》 《초특급 결단법》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책들은 1996년 후반기에 선보인 것으로, 몇 종을 빼고는 대개 《뇌내혁명》과 《초학습법》 이후에 출간된 것이어서 기획의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즉, 언젠가 ‘소설’자 붙은 소설과 《공포특급》류의 책들이 호황을 누린 것과 유사한 정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나름대로 저자 특유의 개성이 발휘되어 있으며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반드시 뒤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또 먼저 출간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분야의 원조로서 대접받아야 한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약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애써 조성해 놓은 분위기에 슬그머니 편승함으로써 스스로 아류임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하나같이 비인간적이다. 경쟁사회에서 나를 제외한 남은 모두 경쟁상대로서의 적임을 강조하고,

남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능력을 배가시켜야 한다는 것을 암암리에 유포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동안 책은 가장 효과적인 교육수단으로서 기능해 왔으며, 교육의 근본은 더불어 사는 사회, 즉 사람다운 사람만들기에 있었다는 점을 지나치고 있는 것 같아 안쓰럽기까지 하다.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기에는 무모한 방법을, 실용적인 것처럼 과장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핀 연후에 선택하지 않은 독자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책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음 또한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인문서에도 ‘몰려다니기’ 식 출판

한편, 가벼운 읽을거리 위주의 독서풍토가 만연한 우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획기적인 변화 중의 하나는 비교적 완성도가 높은 인문과학 분야의 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역사 분야가 그러한데, 역사 시대 이전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고대문명의 흔적을 찾아 그 존재 가능성에 대한 치밀한 주장을 펼침으로써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만큼 각광을 받은 그레이엄 헨콕의 《신의 지문-사라진 문명을 찾아서》를 필두로 비슷한 소재를 다룬 책들이 연달아 선을 보이고 있음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오늘날 정설처럼 여겨지고 있는 진화론적 역사관으로는 도저히 해명할 수 없는 불가

표지의 말

정월 초하루의 ‘연날리기’



연날리기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놀이문화이다. 보통 음력 정월 초하루 세배를 들고 나서부터 시작해 대보름까지 연을 날린다. 설날 때쯤이면 마을의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어우러져 연을 띄우기에 정신이 없다.

연싸움은 연날리기의 절정이다. 잘게 빻은 사기가루를 부레풀에 개어 명주실에 칠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실이 튕날처럼 날카로워진

다. 겨울 하늘을 온통 뒤덮었던 연날리기 풍속은 외국인의 눈에 신기하게 비쳐질 만하다.

영국의 화가 엘리자베스 케이스는 언니 E. K. 로버트슨 스코트와 함께 조선을 방문한 체험기 《Old Korea The land of Morning Calm》(Hutchinson & Co, Ltd/1946)에 조선의 당시 풍물을 표현했다. 표지 그림은 그 책에 실린 작품 《연날리기》.

여성의 섬세한 시각으로 포착해낸 조선의 생활사는 기계문명으로만 치닫는 오늘 우리에게 무형의 문화유산이 갖는 준귀함을 일깨워준다. ◆



두산100주년 기념

어제, 펫 매시니의 재즈 기타에 취했다면 오늘은, 아인슈타인의 理性에 빠져보는거야!

자유로운 理性을 위한 과학교양서, <사이언스 마스터즈>

감성만 자유롭다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라면,

理性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사이언스 마스터즈 -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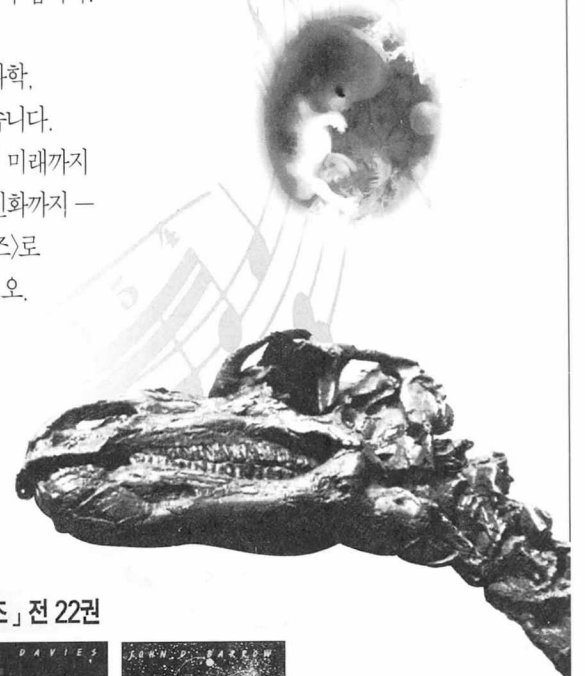
理性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인류의 기원에서 우주의 미래까지

세포의 진화에서 성의 진화까지 -

이제, <사이언스 마스터즈>로

진정한 자유인이 되십시오.



'사이언스 마스터즈 시리즈' 전 22권



① 에덴 밖의 강
유전자본 진화의 매커니즘
과연 인류는 무한대로 복제가 가능한 것인가? 유전자의 결합과 경쟁 그리고 새로운 종으로의 분리는? 리처드 도킨스 지음



② 마지막 3분
지구 최후의 운명에 관한 시나리오
2126년 8월 21일, 거대한 해성과 지구가 부딪힌다. 남은 시간은 3분. 지구의 운명은? 폴 데이비스 지음



③ 우주의 기원
우주 최초의 흔적에 대한 탐사
코비위성이 전한 우주의 비밀은 무엇인가? 우주의 시작 초평창, 오늘날의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 비밀의 기원을 찾아간다 존 배로우 지음



④ 인류의 기원
화석 사냥꾼이 들려주는 최초의 인간 이야기
인류는 과연 20만 년 전 아프리카의 한 여인으로 부터 시작되었는가? 6만 년 동안 지구의 주인이었던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진 이유는? 리처드 레이크 지음



⑤ 원소의 왕국
화학 원소들의 나라로 떠나는 여행
어떻게 주기율을 통해 우주 만물을 이해할 것인가? 물질의 핵심으로서 산소는 여행이 될 것이다 피터 앳킨스 지음



⑥ 자연의 수학적 본성
아름다운 관념의 우주, 수학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
눈송이는 왜 모두 6각형인가? 호랑이는 얼마나, 표범은 얼마나 이유는 무엇인가? 수학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 이언 스텐워드 지음

정가: 각권 6,800원
*계속 발간 됩니다.



두산동아
영업 (02)861-4818 / (02)853-5608

최근 서점가엔

무슨 내용의 책이든 상관없이

잘 팔리는 기미가

보이기만 하면 즉시

아류가 판치는 현상을 보인다.

혈투에 가까운 양상을 보이는

'따라하기' 식 출판에 길들여진

'따라읽는' 독자들 속에서

묵묵히 각개약진하는

출판인들이 오히려 주목된다.

사의한 역사의 흔적을 중심으로 초고대 문명의 존재를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는 이 책은 같은 저자가 건축전문가 로버트 보발과 함께 펴낸 《창세의 수호신》, 부부 문명탐구가로 명성을 얻은 랜드 플렘-아스와 로즈 플렘-아스의 《문명의 종말》 등과 함께 소신 있는 독자들로부터 관심을 얻고 있다.

그밖에 고고학 분야에 대한 관심도 드높아서 《고고학 이야기》 《발굴이야기》 《발굴하는 발굴의 역사》 같은 책들도 호평 속에 잘 팔리고 있으며,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이후 어렵게만 여겼던 고대문명 혹은 역사 전반에 대하여 쉽게 풀어쓴 책들이 독자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외국 저자의 것뿐만 아니라 이미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같은 역사 또는 문화해설서들이 서점가를 장악하고 있는 현상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독서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여전히 남는다. 여기서도 아류 출판의 병폐는 그대로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E.H. 카는 말하기를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 아울러 “역사는 역사가의 해석이고,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는 변화이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들의 가치와 관점의 변화에 따라 언제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해석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최근의 역사서 혹은 문명비판서들은 다양하지 못하다.

가령 《신의 지문》만 해도 해석하기에 따라 문화인류학의 성과물로, 아니면 고고학

의 새로운 해석에 대한 시도로, 또는 세기말적 징후에 관한 예언서로 볼 수도 있는 저작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는 비슷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으로써 하나의 출판 조류를 형성하는 데에는 기여했지만, 최소한 우리 현실에 있어서만큼은 다양한 역사적 해석과 검증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생하는 아류들에 영양분 빼앗겨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같은 책들 역시 그 나름대로 귀중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류들의 등장으로 인해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면 지나친 논리의 비약일까.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이후 이 강산 구석구석을 살살이 만나하기에 충분한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정작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된 율해에는 그런 책들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지 미지수이다. 따라하기식의 출판풍토에 길들여진 따라읽는 독자들이 많은 탓에 과연 어떤 책이 스타로 떠올라 이들을 이끌고 갈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소신 있는 기획출판과 독서풍토가 정착되지 않는 한, 공멸의 길로 우르르 몰려나가는 아류 출판의 병폐는 치유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 셈이다. 베스트셀러일망정 스테디셀러는 될 수 없는 술한 책들의 운명과 함께, 실로 가치 있는 책임에도 기생하는 아류들에 휩싸여 영양분을 빼앗긴 끝에 서서히 숨을 거두고야 마는 안타까운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렇수록 묵묵히 각개 약진하는 출판인들이야말로 21세기에 살아남아 이 땅에 출판의 지평을 넓히는 일에 몰두할 것임 또한 분명한 사실이며, 양식 있는 독자라면 이들을 좀더 주목해야 할 것이다. ❖